

## 경제

# 광주 '울금주' 일본 간다

광산구 '우리술' 생산 토종 막걸리

수출 계약... 6월 중 1500박스 선적

광주 토종 막걸리가 지역업계 최초로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

27일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주)우리술에 따르면 최근 주한물산과 수출계약을 맺고 이르면 6월께 일본시장에 막걸리 1500박스(박스당 750ml 20병), 3000만원어치를 납품키로 했다.

광주 막걸리업체가 일본으로 막걸리를 수출하는 것은 지역업계 최초로 알려져 있다.

수출되는 막걸리는 '울금 막걸리'로 불리는 '울금주(酒)'다. 핵심

을 원료로 울금 성분을 함유한 울금주는 혈액순환, 통증완화에 효과 있는 것으로 평평하다.

지난해 출시돼 지난 1월부터 이마트 전국 127개 매장과 중·소형 마트 등에 납품되는 등 호평받고 있다.

울금주의 수출에는 대형체인에 납품되는 등 맛과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주한물산이 일본 니카이사에 제품을 추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울금주는 일본시장의 반응에 따

라 향후 수출물량이 결정될 예정 이어서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느냐 여부가 대량 수출을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리술'은 일본시장을 본격 공략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등 시설 확충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1일 생산량이 최대 200박스에서 국내 물량을 대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0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한 성장률은 2002년 4분기 8.1% 이후 가장 높은 7.8%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8%로 작년 4분기 0.2%를 크게 웃도는 등 5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

을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7.8%를 기록했다. 제조업 생산은 거의 10년 만에 20%대 증가율을 보였고 내수도 수출과 설비투자의 기록적인 증가세에 힘입어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찬대 사장은 "농수산식품부에 시설확충 자금 10억원을 요청해 해놓은 상태"라며 "공장 확장작업을 하고 있고 기계설계도 마친 상태 때문에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가 뚜렷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작년 1분기와 높지 않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지난 12월 한은이 발표한 수정 전망치(전기 대비 1.6%, 작년 동기 대비 7.5%)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는 수출과 산업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와 화장품 등 주류제조 등 5분기 연속 기준치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9.5% 늘어나 2000년 2분기 11.4%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의류와 신발 등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 증가로 전기 대비 3.6% 증가했으며, 정부소비는 사회보장지출 증대 등으로 5.7% 늘어났다.

20%대 증가율을 보였다.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6% 늘어나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출 측면에서는 내수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호조를 바탕으로 전기 대비 2.7% 증가했다. 작년 동기 대비 9.5% 늘어나 2000년 2분기 11.4%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의류와 신발 등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 증가로 전기 대비 0.6% 증가했으며, 정부소비는 사회보장지출 증대 등으로 5.7% 늘어났다.

금호타이어 '여진'

비정규직 부분 파업

공장가동 차질 우려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의 노사가 공동평화선언을 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노조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서 공장 가동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비정규직지회는 이날부터 하루 4시간씩 광주공장 등 3개 공장에서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가 도급업체에 비정규직원의 임금을 10%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가 이제는 20% 삭감안을 제시했다"며 "임금을 10% 만 삭감해도 비정규직원 절반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은 임금 및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하고 지난 23일 두달치의 밀린 급여를 받았으나 비정규직은 지금까지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금호타이어 경상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일본에 막걸리를 수출하게 될 (주)우리술의 직원들이 광주시 광산구 공장에서 '울금 막걸리'로 불리는 '울금주(酒)'를 생산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막걸리 韓流'에 국산술도 인기

작년 일본수출 1억6657달러... 10년새 두배

일본시장의 막걸리 열풍에 힘입어 국산 술의 대일(對日) 수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해 국산 술의 일본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 1억6557만5000달러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1999년 8천186만 9000달러에서 10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일본의 전체 주류 수입액 중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

0%에서 7.9%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일본의 전체 주류 수입액은 줄었으나 한국산 수입은 늘어 점유율이 크게 뛰었다. 일본의 주류 수입시장은 연간 20억달러 이상 규모다.

특히 막걸리는 일본에서 선종적인 인기를 끌며 10년 전(50만5000달러)에 비해 수출액이 9배 이상 증가한 540만달러를 기록했고, 맥주 비율을

조정해 주세를 낮춘 '제3 맥주(곡물 발효주의 일종)'도 7배 이상 늘어난 5천934만5000달러여서 수출됐다.

aT 관계자는 "우리 술의 점유율 증대는 막걸리와 제3 맥주 등 국산 발효주의 힘이 커졌다"며 "국산 발효주의 지난해 일본 발효주 수입시장의 61%를 차지하며 1위를 지켰다"고 말했다. aT는 앞으로 과실주 등의 수출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지역 체감경기 호전 기대

광주·전남 소비자 심리지수 5개월 연속 100 웃돌아

광주·전남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아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2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가 114를 기록, 지난해 12월 115로 점점을 찍은 후 5개월째 기준치를 넘어섰다.

지수별로는 4월 중 현재경기판단

CSI(97~96)는 1포인트 하락했지만, 환후경기전망 CSI는 108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를 웃돌았다.

앞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유가 등 물가수준(39%), 고용사정(25%), 수출·환율 등 대외요인(17%),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향후 6개월의 가계수입을 예상하

## '박지성 위스키' 나왔다

'임페리얼15' 내달 한정판매

위스키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과 공동 작업으로 만든 '임페리얼15 박지성 리미티드 에디션'을 27일 출시하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박지성 위스키'로 불리는 이

제품은 국가대표팀 주장을 맡은 박지성을 모델로, 상호 존중과 팀화합을 바탕으로 한 그의 리더십을 임페리얼에 투영한 제품이라

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엄선한 최소 15년산 이상의 고급 원액에 박지성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향과 맛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박지성은 지난 3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맛과 향이 다른 4 가지 위스키 중 자신이 선호하는 위스키를 선정했다.

박지성 위스키는 임페리얼 12년산(500ml)과 동일한 2만4천68원에 판매된다.

전국 항만물동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한 2억8100만t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항만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17.1% 상승한 9668만t, 2월은 9.5% 증가한 8624만t, 3월은 10.3% 많은 9858만t으로 나타났다.

전국 항만별로는 편택당진항이 현대제철과 여수항, 목포항 등 광주·전남지역 3개 무역항에서 올 1분기에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5473만343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8만8961t보다 16.5% 급증했다.

우리나라 2대 항만인 광양항은 올 들어 4885만5041t의 물동량을 처리, 지난해 4182만8564t보다 16.8%(702만4477t) 늘어났다. 컨테이너 물량도 49만2000TEU로 28.5% 급증했다.

특히 여수항의 물동량은 305만 715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1만 5948보다 68.8% 폭증했다. 반면 목포항은 지난해보다 52만3209t 감소한 282만1240t였다.

전국 항만물동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한 2억8100만t으로

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항만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17.1% 상승한 9668만t, 2월은 9.5% 증가한 8624만t, 3월은 10.3% 많은 9858만t으로 나타났다.

전국 항만별로는 편택당진항이 현대제철과 여수항, 목포항 등 광주·전남지역 3개 무역항에서 올 1분기에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5473만343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8만8961t보다 16.5% 급증했다.

우리나라 2대 항만인 광양항은 올 들어 4885만5041t의 물동량을 처리, 지난해 4182만8564t보다 16.8%(702만4477t) 늘어났다. 컨테이너 물량도 49만2000TEU로 28.5% 급증했다.

특히 여수항의 물동량은 305만 715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1만 5948보다 68.8% 폭증했다. 반면 목포항은 지난해보다 52만3209t 감소한 282만1240t였다.

전국 항만물동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한 2억8100만t으로

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항만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17.1% 상승한 9668만t, 2월은 9.5% 증가한 8624만t, 3월은 10.3% 많은 9858만t으로 나타났다.

전국 항만별로는 편택당진항이 현대제철과 여수항, 목포항 등 광주·전남지역 3개 무역항에서 올 1분기에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5473만343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8만8961t보다 16.5% 급증했다.

우리나라 2대 항만인 광양항은 올 들어 4885만5041t의 물동량을 처리, 지난해 4182만8564t보다 16.8%(702만4477t) 늘어났다. 컨테이너 물량도 49만2000TEU로 28.5% 급증했다.

특히 여수항의 물동량은 305만 715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1만 5948보다 68.8% 폭증했다. 반면 목포항은 지난해보다 52만3209t 감소한 282만1240t였다.

전국 항만물동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한 2억8100만t으로

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항만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17.1% 상승한 9668만t, 2월은 9.5% 증가한 8624만t, 3월은 10.3% 많은 9858만t으로 나타났다.

전국 항만별로는 편택당진항이 현대제철과 여수항, 목포항 등 광주·전남지역 3개 무역항에서 올 1분기에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5473만343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8만8961t보다 16.5% 급증했다.

우리나라 2대 항만인 광양항은 올 들어 4885만5041t의 물동량을 처리, 지난해 4182만8564t보다 16.8%(702만4477t) 늘어났다. 컨테이너 물량도 49만2000TEU로 28.5% 급증했다.

특히 여수항의 물동량은 305만 7157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1만 5948보다 68.8% 폭증했다. 반면 목포항은 지난해보다 52만3209t 감소한 282만1240t였다.

전국 항만물동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한 2억8100만t으로

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항만물동량은 작년 동기 대비 17.1% 상승한 9668만t, 2월은 9.5% 증가한 8624만t, 3월은 10.3% 많은 9858만t으로 나타났다.

전국 항만별로는 편택당진항이 현대제철과 여수항, 목포항 등 광주·전남지역 3개 무역항에서 올 1분기에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5473만343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698만8961t보다 16.5% 급증했다.

우리나라 2대 항만인 광양항은 올 들어 4885만5041t의 물동량을 처리, 지난해 4182만8564t보다